

연중 제 31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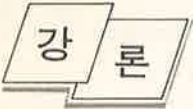
제1독서 : 말라1,14b-22b,8-10

제2독서 : 1데살2,7b-9,13

복 음 : 마태23,1-12

순정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태 23, 12).”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



서석희 신부 / 인후동 천주교회

오늘 성서의 모든 말씀은 믿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말씀의 선포사”로서 뿐만 아니라, “말씀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생활의 일치로써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께서는 마치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나 교회에 매력을 잃고 냉담해버린 사람들,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말투를 빌려 교회 지도자들을 나무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사는 동안 무수히 제자와 스승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산다는 자체가 온통 배움으로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남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때문에 보살핌을 주로 받는 어린 시절을 거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전인적인 완성에 이르는 길목에서 참된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는 사람이 그의 존엄성과 가치를 깨닫는 일, 사람이 서로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워야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르쳐야 할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어제는 배워야 할 입장에 섰던 영세자가 오늘은 가르쳐 주어야 할 대부분의 입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마태오 23,8)는 오늘 복음의 말씀은 깊은 뜻을 지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완전한 스승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한 분이신 스승을 닮아가야 할 중대한

없는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위협적인 요소라고 경계한 무신론(無神論) 가운데서 그 세력이 가장 크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상의 흐름은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전투적인 무신론입니다. 이들은 무신론의 문제를 그리스도교 교리에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 배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느님조차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지적은 교회에 일침을 가해서 교회로 하여금 자성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의회는 무신론에 관한 가르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신론 발생에 적지 않은 책임을 신앙인들이 질 수도 있다. 자신들의 신앙배양을 등한시하거나 교리를 잘못 설명하거나 종교생활, 윤리생활, 사회생활 면에서 결점을 드러냄으로써 하느님과 종교의 참모습을 보여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가려버리기 때문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19항).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한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묵상해봐야 하겠습니다.



옷을 벗어야 사는 나무



한상갑(바오로)

*낙엽이 지는 계절

낙엽 직전의 가을 단풍이 한창이다. 조금이라도 이 름이 난 산에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인다. 울긋불긋한 등산복과 어우러진 단풍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인지, 단풍잎만큼이나 많이 물려든 인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람들은 산으로 산으로 물리는 계절이 지금이다. 그러다가 문득 단풍이 들었던 나뭇잎들은 대지의 이불이라도 되듯이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 그리고 이듬해가 되면 파란잎으로 부활하여 싱그러움을 뽐낸다.

단풍은 나뭇잎 속의 클로로필이 분해되고, 새로이 붉은색인 안토시아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다. 어찌 되었던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멋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풍이 드는 이치를 과학의 이름으로 따지려 들지 않는다. 그저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늦가을에 단풍이 들었던 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그래도 머지 않아서 싱그러운 새봄이 올 것을 알기에 희망을 갖으며 말이다.

*사는 게 무엇인지

새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우리 사회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갓 임명된 장관들이 금세 미끄럼을 타는가 하면, 한 때 명명거리던 별들이 우수수 쏟아지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실시에서는 분수를 넘는 소유가 곧 부끄러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행복한 국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구조요, 또 하나는 보다 나은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한 물질이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만족시켜 주기도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 그리고 정치권력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더 오래 지니기 위해서 남들을 사정없이 잘라 몽개기도 한다.

물질은 어떠한가? 그것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부(富)는 여럿이서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 좋으련만, 사람들의 욕심은 그렇지 않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많던 재산 한 푼 못

가지고 저승길을 떠난 부자들, 어떤 자손들은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송사도 마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불러 보아도 그들의 대답을 들을 길이 없다. 언젠가는 누구라도 죽어야 하는 필연적인 섭리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던 그들, 지금은 후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대꾸 한 마디 못하고 있을 뿐이다. 사는 게 무엇인지,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말 없는 웅변으로 가르치며 조용히 있을 뿐이다.

*향기나는 사람들

어떤 때는 세상이 악마구리가 들끓는 수라장 같지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은은한 향기를 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 살 맛을 느낀다. 위도 앞 바다에서 여객선이 기꾸러질 때, 어서 밖으로 뛰어내려 살자는 형의 권유를 뿌리치고 승무원의 임무를 다하다가 승진 사람도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여 이웃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이들이나, 주린 배를 줄라매며 번 돈을 인재양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떡장수 할머니가 바로 이 시대에 향내를 풍기는 이들이다.

낙엽 하나 제 살을 썩게 해서 거름이 되니 이듬해에는 제가 떨어져 나온 본디 몸에 새생명을 싹틔운다. 이것이 우리를 일깨우는 대자연의 섭리이다. 나무는 여름내내 무성했던 옷을 다 벗고 최소한의 자기 골격 만을 지키며 겨울을 난다. 그래도 이듬해엔 더 풍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긴다. 단풍 들어 떨어지는 낙엽, 그것은 결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숲정이 산책



위령 성월

축일의 의미와 주보성인

교회에서 말하는 성인의 축일이란 대개 그분들이 돌아가신 날을 말하며, 신자들은 이 장례일을 기념한다.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자들의 죽음을 축복받은 새생명체로의 탄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성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성인들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청한다. 또한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조금이라도 성인들 생애의 생활에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세속명 외에 자기의 본명이라 하여 세례명을 갖게 되는데 이는 13세기부터 시작된 것이며 현대에 와서는 규칙으로 정하여져서, 교회법에서도 이를 명하고 있다. 신자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성인이나 성녀를 선택하여 그분들을 자기의 주보성인(主保聖人)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실천한 바를 본받고 벗으로 삼는다.

교회는 일 년을 통하여 매일 어떤 성

성인 공경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계시진리이고,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완성한

성인들의 삶.

본받기 위해서다.

인의 축일을 기념하고, 전례력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모든 성인의 대축일'을 11월 1일 지낸다.

모든 성인의 통공과 위령 성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과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인데, 이들이 기도와 회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는 현상.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신앙고백을 해 왔다. 이로써 우리는 신자 상호간에 기도와 선행으로 서로 돕고 또한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도울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위령 성월인 11월 한달 동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 한달 동안 미사 참례와 기도, 묘지 방문은 죽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공로다. 11월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날마다 한 번씩 연옥 영혼들에게만 양보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날에는 부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조건 외에 위령의 날이나 모든 성인 대축일, 교구장이 허락한 그 전 주일이나 다음주일 성당에 방문하여 기도하고 고백과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쳐야 한다.

요심이 (1053) 김병오



초대합니다!

10월31일 순창 본당의 날!
오리지널 도토리묵(성당 산 도토리), 찹쌀 동동주(성당 논 무농약 찹쌀) 모두들 드시러 오세요.

순창 성당 주임신부 권 이 복
순창 성당 사목회장 정 준 원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 자매회 성소자 모임

- 때 : 11월 7일 오후 1시
- 곳 : 서울 사무소
- 문의 : (02) 272-5643

알림

유기 농업, 우리밀 살리기 운동 등 생명의 먹거리 생산에 힘써 온 가톨릭 농민회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자 합니다. 먹거리(농산물)상담, 공급. ☎ (0652) 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남수
가톨릭 농민회 지도신부 권이복

우리 온돌 전기 판넬

전북총판

- 우리 온돌은 에너지 저금통입니다.
- 2일치 연료로 3일을 땁니다.
- 24시간 따뜻합니다.
- 강우금(대건 안드레아)
주임순(바울라)
신대산업 ☎ 78-1363

구(九) 죽염

- 9번 구운 약용(신경성 위장병)
- 3번 구운 식용(반찬, 치아, 김장)
- 3번 구운 미용(사우나)
- 판매원 모집(판매처 모집)
☎ (0658)547-9970
배배 012-688-0993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젠,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판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有) 경일건설

조립식 건축, 사무실 칸막이, 건축, 토목, 샌드위치판넬, 콘테이너 하우스
김해선(레이지오)
구 소방서 ↔ 홍곡생명 중간
☎ (0652)75-0161 · FAX 71-6302
호출기 012-681-0055

뿌리를 찾아서 ④〇

용안 성당

— 기도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



용안 성당은 석동 본당의 후신으로 화산 성당(현 나바위) 관할인 석동리 지역에 1933년부터 1935년까지 공소 건물과 사제관을 신축하고 선교한 결과 신자수가 급증했다. 1940년 이성만(이나시오) 신부를 초대 주임으로 맞이하여 본당으로 설정, 제5대 하한주(요셉) 신부에 이르기까지 발전하다가 6.25사변을 겪은 뒤 안대동 본당(1959.1.합열 성당으로 개칭) 관할 공소로 격하되었다.

그 후 1975년 현 성당 대지를 확보하여 이듬해 2월 대지 지지 작업과 6월에 성당 건축을 시작, 1977년 4월 준공하였다. 이에 앞서 1976년 12월 합열 성당과 나바위 성당의 구역조정으로 인해 성미카엘 대천사(축일

9월29일)를 주보성인으로 한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본당 공동체는 1979년에 성모상 건립과 성당 진입로 축대 공사, 분수대 공사를 하고, 1982년 10월 성당 내부의 성가대 자리를 증축, 1987년에는 사무실과 창고를 신축하고 신자와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9년 구 사제관을 수녀원으로 개축 공사를 하여 1991년 2월에 까리따스수녀회의 분원이 설치되어 신자들과 한마음으로 예비자 인도와 냉담자 회두에 전력하며 본당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본당 신자 대부분은 신앙심이 돈독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선교 열의가

가득찼으며 30~40대의 젊은 신자들이 사목회 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본당 공동체가 보다 진취적이며 적극적으로 화합되고 있다. 특히 강덕행(요셉) 본당신부와 신자들이 1992년 5월부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7천만 동포가 1인 1단씩만 묵주의 기도를 봉헌한다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염원으로 "7천만단 봉헌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본당신부와 신자들의 돈독한 신앙심으로 지금껏 꾸준히 봉헌되고 있으며, 이 운동에 타본당의 신자들도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12. 유전 공학과 인간의 미래



모든 생물로 하여금 각기 그 특유의 형상과 기능을 갖게 하는 세포 내 물질을 유전자라고 하며, 이 유전물질의 존재나 기능은 최근까지도 신비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체나 생명현상에 대해서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3년 미국의 왓슨과 크릭이라는 두 학자가 이 물질의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이후로 유전 물질은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지금은 급기야 유전자를 조작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체 내지는 생명 물질까지 만들어 내는 이른바 유전 공학 기술로까지 발전이 된 상태다.

이 기술은 언뜻, 잘만 사용하면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희망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것은 오늘 우리 세계가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들, 예컨대 식량이나 자원, 그리고 공해문제와 질병까지도 이 기술이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자칫 잘못 사용되는 경우,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만한 가공할 잠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이미 그 기술 개발 초기부터 중대한 윤리문제에 부딪혀 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학 박람회로 불리는 대전 엑스포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바티칸관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도 과학 기술, 특히 생명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이가겨울지도 모르는 위험을 경고하고, 높은 윤리 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자연 동물병원

대동물, 소동물 각종 질병 상담 및 수술,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예견용품

이 한 경(요한)

☎ 231-9529(주) 84-6058(야)
호출기 012-678-9529

한국 정보통신(주)

신용카드 조회기 이지 체크
수표 조회기

허 정 식(알베르도)

☎ 이리 (0653)842-6328
군산 (0654) 42-6987

현대 신경과 의원

신경과, 신경 내과
신경소아과, 정신과
정 영 철(토마스)

서부시장 옆 기아자동차 전시장 2층
☎ 223-0194

운 장 회 관

피로연 600석 완비

한 광 석(야고보)
전 민 자(울리아)

중앙 성당 ↔ 안양,목원예식장
☎ 254-7533

교회 묘지를 생각한다

이갑진(세자 요한)회장/복자 성당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달이다.

편리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 35년 동안 “애령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지구 묘지관리위원장 이갑진(70, 세자 요한, 복자 성당 소속) 회장의 신앙을 통하여 타 교구(연령회)와는 다르게 사목회 안에 애령회분과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애령회의 조직 과정 및 활동 그 현안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전주교구가 가진 묘지 확장 대책에 대한 관심을 함께 고취하고자 한다.

애령회는 고(故) 김재덕 주교님의 중앙 성당 주임 신부 시절, 초상에 노인들만이 활동하심을 안타깝게 여겨 당시 나이 35세였던 이갑진 회장을 주축으로 젊은 세대가 참여, 소외된 사람부터 사랑하자는 다짐 하에 신·망·애 3덕과 진복 8단의 정신으로 조직되어 현재 전주교구 59개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 많았기에 물질적인 것까지도 함께 나누며 눈물겨운 순간들을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겨내 왔다고 한다. 단순하게 시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성체를 모셨던 몸 즉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공전으로서 그 공전을 다루는데 어찌 감히 함부로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소신으로 현재 그가 만진 시신은 한 달 평균 3구, 35년 넘게 해 온 활동으로 약 1,260여 구에 이른다.

현재 애령회는 각 본당 내의 레지오를 비롯한 신심 단체들의 활성화로 인하여 별도의 활동보다 신심단체 안에 ‘입관부’를 두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본당에 교적을 둔 자는 모두 그 본당의 애령회 회원이기도 하다.

이갑진 회장은 전주지구 묘지관리위원장으로 지속적인 애령회 활동을 위해 5년 가까이 일해온 체험을 바탕으로 애령회 활동에 필요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교육해왔고, 묘지 관리는 각 본당 애령회 회장들을 위원으로 하여 함께 일하며, 중앙 성당 내에 묘지관리위원회를 두어 그곳에서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장의사들의 빈번한 판촉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일로 주어진 재화를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현재 교구에는 전주지구, 군옥지구, 이리지구 및 순창, 대야, 나바위, 남원, 황등, 김제 본당에서 묘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면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전주지구 내 덕진구 금상동 및 산정동(일명 소리갯재)에 소재한 묘지는 그 사용기수가 1993년 현재 3,680여 개에 이르고, 지금은 묘지 뒷쪽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더 이상 묘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전주교구에서는 부귀면 두남에 공원묘지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부귀면 주민 일부 638명의 서명 하에 묘지 설치 반대 진정서가 15개 기관에 발송(1993. 5. 10), 공원묘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늘어나는 본당 신축, 계속되는 도시 개발로 갈수록 시내와 인접해가는 현 묘지를 생각할 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 서류 보완 및 주민 설득을 통하여 공원묘지 설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도내 군산지구 및 이리지구 역시 묘지확보 및 이전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가을이다. 단풍이 붉게 타고 있음은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한 전주곡이라. 주님이 계시기에 지상의 삶을 감사하며 내 주변에 주님의 손길을 전해주시 못한 보잘것 없는 부분을 챙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펍 의미가 있을 듯하다.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성인 공경과

내일(11월1일)은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고, 모래(11월2일)는 ‘위령의 날’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우리의 희망이요, 보증인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천국의 성인들과 단편을 받고 있는 연옥 영혼들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성인이란?

신약성서에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한 명칭으로 ‘성도(聖徒)’ 또는 ‘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지만(골로 1,2) ‘성인’이란 칭호는 초기 교회서부터 성덕이 뛰어난 분들에게만 불려져 왔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인은 생존시에 영웅적인 덕행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 교회가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또는 ‘성인록’에 올라 장엄한 선언에 의해서 성인으로 선포된 분들을 가리킨다. 교회가 어떤이의 성성(聖性)을 공인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전세계의 사람들이 그 성인에게 전구(轉求)를 구하여도 되고, 그분의 생존시 덕행이나 순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증언이요 본보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103위의 성인이 있다.

성인 공경과 기원의 역사

성인 공경은 가톨릭교회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인 공경은 대략 콘스탄틴 대제의 313년 밀라로 칙령(종교 자유)이후 치명자 순교자 공경으로부터 유래된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했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다’는 데서 순교의 존귀함을 인정했으며 공경했다. 말하자면 성인 공경은 순교자 공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 성인 공경에 관하여 종교 개혁자들에게 설명하고, 주님,



모든 성인의 통공

홀로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인들을 불러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정의했고, 제2차 니체아 공의회(787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흠송지례(欽崇之禮)라 하고 성인들에 대한 존경을 공경지례(恭敬之禮)라 하여 양자를 구별했다. 그리고 제2타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에 의하면 성인 공경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흠송을 약화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완전케 한다고 지적하고, 성인 공경은 우리의 행동적 사랑의 깊이에 있으며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성인들의 생활에서 모범을 찾고, 통공에서 일치를 찾으며 전구에서 도움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교의현장 51).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흠송하면서 성인들도 아울러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계시진리이고,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완성한 성인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다.

명동 유리상사

건축유리, 페어유리, 수족관, 거울, 액자, 베란다-샷슈

박종태(타대오)
강옥금(마르파)

이리 귀금속 후문 앞

☎ (0653)842-8978,841-1440

전북피아노사

각종 피아노 매매·조율·수리·운반 전문 센터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효자동 할매 곰탕집 앞

☎ 223-5823

차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병풍, 가리개, 족자 전문 동양자수

김용섭(마르티노)
윤은숙(모니카)

대야 천주교회 상가

☎ (0654)451-3928

(0654)451-6347

교 구 소 식

- ❖ 도시·농촌 간 사랑의 나눔 잔치
 - 때 : 10월29일-31일
 - 곳 : 전동 성당 마당
 - 문의 : 85-2935
- ❖ 선교 체험, 성공사례 수기 공모
 - 길이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마감 : 11월20일 (당일 소인 유효)까지
 - 접수· 문의 : (0652)85-2935
- ❖ 축! 견진
 - 때 : 11월7일(일) 오전10시30분
 - 곳 : 장수 성당
- ❖ 천호 피정 안내
 - 때 : 11월4일(목)
 - 주제 : 사랑과 기쁨
 - 강사 : 범석규 신부
- ❖ 성직자 모지미사
 - 때 :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10시30분 고백성사-10시
 - 주례 : 김교동 신부
 -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바랍니다.
- ❖ 사무장, 사무원 소풍
 - 때 : 11월2일(화)

- ❖ 꾸르실로 총회
 - 때 : 11월6일-7일
 - 곳 : 천호 피정의 집
- ❖ 가톨릭 문우회 문학 잔치
 - 때 : 11월6일(토) 밤7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연사 : 천아두 선생
 - 주제 : 한국적 한의 구조
- ❖ 사랑의 다리 후원회 연례 피정
 - 때 : 11월1일(월) 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
 - 곳 : 전동 성당 교육관
 - 문의 : 84-5290
- ❖ 빈첸시오회 회원 연수
 - 때 : 11월6일-7일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 빛두레 신앙인 학교 개강
 - 때 : 11월8일-12월13일
 -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 곳 : 전동 성당 교육관
- ❖ 전주교구 가톨릭 교수연합회 창립총회
 - 때 : 11월5일(금) 오후3시
 - 곳 : 가톨릭센터

- ❖ 청소년 종교음악연구회 단원 모집
 - 때 : 11월7일(일) 오후2시
 - 문의 : 85-0041(교육국)
- ❖ 성모의 기사회
 - 때 : 11월6일(토) 오전10시
 - 곳 : 효자동 성당
-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11월22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파워 오브 워
 - 내용 : 인종차별에 관한 영화.
 - 회비 : 1,000원

성소모임

- ❖ 성바로달수도회
 - 때 : 11월7일 오후2시
 - 곳 : 성바로 서원 (0652)252-3398
- ❖ 살레시오수녀회
 - 때 : 11월7일 오후2시
 - 곳 :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들 중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많다. 플라스틱 제품은 석유를 원료로 생산되어 자연속에서 썩지 않으며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석유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플라스틱 제품은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는 땅 속에 묻는 것, 박테리아

분해, 소각, 재이용 등이 있다. 그러나 땅에 묻을 경우 부패도 분해도 되지 않으며 박테리아의 작용도 받지 않는다. 또한 소각하면 고열에 의하여 소각로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해로운 가스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플라스틱 제품은 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비닐 제품 사용을 줄이고, 사용시 재생공장에 보내도록 해야겠다.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대리점>
 · 샴피랑 : 은뿔, 샴푸, 린스 겸용
 · 천연샴 : 부엌용(아기샴, 맑은샴)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커텐장식·훈수이불·흙패션
천 지방
 교우 여러분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김 대 원(프란치스코)
박 혜 순(헬 레 나)
 숲정이 성당←→현대APT 중간
 ☎ 77-3519, 253-2461

축! 확장 이전
결혼 예물 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목주반지 제작
 김형태(올리야노) 박태연(마르타)
 전동 성당 사거리
 ☎ 82-9005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변원구 한의원
 변원구(예로니모)
 허정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 옆
 ☎ 252-1783
 253-6355~6

법무사 원도희
 형사, 민사, 가사, 공탁,
 호적, 등기 등 상담
원도희(루도비코)
 코야←→시청 광장 사이
 ☎ 85-4736, 85-607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 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동주

- 11월은 위령 성월.
- 사목회장: 김동주(유스티노) 감사: 박태복(마태오) 장성복(마오로) 제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 성시간: 4일 저녁미사 후. 2. 병자봉성체: 5일, 사무실에 신청.
- 3. 사목회 상임: 12일 저녁미사 후. 4. 반미사: 중노5반3일 후 3시. 5.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2일 어머니미사 후) ②반회장(4일 전 10시30분) ③올드레아(7일 장엄미사 후) 6. 알림: ①다음주일(7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②송명준(도마)형제께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7. 금주 청소: 동진1, 2반. 차주 청소: 남노1, 2반.

□ 지난주 봉헌금: 1,206,330원 □ 교무금: 1,335,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상인

- 11월은 위령성월 이달은 선영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억하는 달입니다.
 - 1. 복자 애령회 제8차 행사: 11월4일 유인물 보시고 참석바람.
 - 2. 성체감복: 11월4일 저녁미사 후.
 - 3. 사무장, 사무원 소풍: 11월3일(교주)
 - 4. 회합: ①올드레아-11월2일 저녁미사 후
②대건회-11월7일 공식미사 후
③사목회-11월7일 저녁미사 후
- 금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안철조 부부, 봉헌-윤재원 가족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전호송 부부, 봉헌-김성원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51,770원 □ 교무금: 816,31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황동욱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선영들을 위하여 기도해 바랍니다.
 - 축! 영명: 이(철비아)수녀님(3일) 많은 기도바랍니다.
 - 1. 사목회 임원 개편: 사목회장-양주태(노렌조) 감사-한동욱(디도) 유순천(도마) · 미사시간 변경-11월부터 저녁미사.
 - 2.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6일(토) ③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④성체 감복 및 성시간-4일(목)
 - 3.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4. 오늘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 헌금일입니다.
 - 5. 감사: 신부님 영명 축일 행사에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 6. 차주 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양주태 ②이춘봉
- 봉헌-유순천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50,270원(130,470)
□ 교무금: 17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연중 제 31주일! (11월은 위령 성월)
 - 1. 반장회: 10월 31일(오늘) 공식미사 후.
 - 2. 자모회: 11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 3. 꾸리아: 11월 7일(다음 주일) 오후 2시.
 - 4. 가정방문: 11월 2일(화) 16반, 21반, 11월 3일(수) 17반, 20반.
 - 5. 한글학교 모임: 11월 5일(금) 오후 3시.
 - 6. 교무금 미수자 완납바람(교무금을 전혀 내지 않은 신자가 있습니다.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917,000원 □ 교무금: 645,000원
□ 2차 헌금: 343,75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연중 제 31주일
 - 1. 오늘 공식미사 후: 사목회 총회, 요셉회, 사라회.
 - 2. 가정, 반미사: 3구역, 3반, 4반.
 - 3. 가정방문: 11월3일 4일~1구역.
 - 4. 구역, 반장 모임: 11월5일 금요일미사 후.
 - 5. 목요일 예비지만 시작: 11월4일 목요일 미사 후.
 - 6. 레지오 마리아 교육: 11월 7일 9시~10시 20분.
 - 7.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 8. 청소년 봉사: 3구역 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732,500원 □ 교무금: 1,17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성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명행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 1. 자모회 소풍: 11월 1일(월) 내장산. 회비: 15,000원, 참가자 사무실에 접수.
- 2. 구역별 가정방문: 11월부터 본당신부(새영세자, 전일자 대 상)
- 3. 성당 가족 소풍: 3일(수) 저녁미사 없음.
- 4. 베에따회: 3일 오전 11시.
- 5. 성체 감복 및 조배: 4일(목) 오전 10시.
- 6. 성모 성심회: 4일 오후 3시.
- 7. 봉성체: 5일(금) 오후 2시.
- 8. 요셉회 단합대회: 6일(토) 순창 강천사.
- 9. 차주: ①초동부 성지 순례(여산-나바위)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②올드레아(공식미사 후) ③제숙 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삼근

- 1. 위령의 날 합동 미사: 2일 미사-새벽 5시30분, 10시30분-교회 묘지, 저녁 7시30분 교회묘지 미사 후 애령회 정기총회.
 - 2. 구역 반회장 연수회: 2일 12시 신원리 공소에서.
 - 3. 성시간 성체 감복: 4일 저녁 7시 30분. 위령 성월의 의미.
 - 4. 유아세례: 6일 후 3시. 5. 교리 교사 모집: 박모니카 수녀님.
 - 6. 가정방문: 5일 2-2반 전 9시. 2-3반 후 2시30분.
 - 7. 빈첸시오 회원 연수: 6일~7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 8. 축! 혼배: 신랑-김성태, 신부-최혜경(안나) 6일 12시. 신랑-전일삼, 신부-박선자(고레띠) 7일 12시 30분 무궁화.
 - 9. 회: 부녀회-3일, 꾸리아-다음주일, 한빛회-다음주일.
 - 10. 가정미사: 5일 후 8시. 대야 청산 나눔 409호. 김도식 형제.
 - 11. 축! 원도회 범무사 개업: 축성식. 26일 후 1시 시청 앞.
- 지난주 교무금: 1,611,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이성우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 1. 사목회 피정: 오늘 미사 후.
 - 2. 구역장 릴레이: 2일(화) 오후 8시.
 - 3. 전례자회: 3일(수) 오후 8시.
 - 4. 영세자 모임·성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 5.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 7시.
 - 6. 가정방문: 2일(화) 화산1. 3일(수) 거성화산. 4일(목) 평화. 5일(금) 남양서원.
 - 7.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평일미사는 오전 10시로 변경)
- 금주 전례: 김희숙, 강희연, 독서·봉헌-정인자, 서동호
차주 전례: 김경숙, 한병갑, 독서·봉헌-이선주, 정준성.
- 지난주 봉헌금: 478,300원 □ 교무금: 706,000원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삼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동섭

- 오늘은 연중 제 31주일입니다. (본당을 위한 2차 헌금)
- 1. 유아 세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 2. 환자 봉성체: 11월2일(화) 오후 2시부터.
- 3. 구역 봉사자 모임: 11월3일(수) 오전 10시30분.
- 4. 사목회: 11월5일(금) 오후 8시(분과별 계획서 제출바랍니다)
- 5. 성모기사회: 11월6일(토) 10시 30분.
- 6. 안나 요셉회: 11월7일(일) 공식미사 후.
- 7. 미사 안내: 금주-그리스도의 어머니, 즐거움의 연유 차주-황금궁전, 천주성총의 모후
- 8. 애령회: 공식미사 후 교육관(회원 참석 요망)
- 9. 제3기 빛두레 신앙인 학교 개강: 저녁-11/8~12/3, 장소-전동성당 교육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 1. 모임 안내: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요셉회-공식미사 후 ③여성분과-5일(금) 10시미사 후. 2. 성체감복: 4일(목) 10시 미사 후. 3. 봉성체: 4일(목) 오후 2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4. 가정방문: 3일(수) 오후 2시 롯데1반, 5반. 5일(금) 오후 2시 롯데2반, 3반. 5. 11월2일 위령의 날 성당묘지 미사시간 안내: 2일(화) 10시30분. 6. 사목회 각 분과별, 제단체에서는 94년도 계획서와 예산안을 7일까지 접수. 7. 청년 성가대원 성가연습: 일요일 오후 6시. 차주 모임: 꾸리아, 빈첸시오회, 구역분과, 자모, 성모, 성심회. 금주 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정진호 ②김홍숙, 봉헌 안내-이삼준 부부, 유준구 부부. 차주 전례: 해설-정원희, 독서①이종표 ②정명희, 봉헌 안내-정진호 부부.
- 2차 헌금: 538,870원
□ 지난주 봉헌금: 1,285,800원 □ 교무금: 2,128,000원

빈첸시오 하반기 피정 및 교육: 11월 7일(일) 오전 9시, 대건신협 4층, 1인당 1만원